

신화순 위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봉사대상 '영예'

26여 년간 쌓아온 봉사 정신 토대로 나눔정신 실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기여 등

신화순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회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3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진행한 2023년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교육, 문화, 체육, 환경, 의정, 지방자치, 봉사 등 7개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꾸린 심사위원회 자문단을 운영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구촌 곳곳의 불합리한 사회 현상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 신화순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봉사부문 '봉사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봉사대상은 공동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나

눔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에 귀감이 되는 점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조직위는 후보자의 공적조사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수상자를 선정했다.

신 위원은 26여년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여러번 표창을 수여받았고, 그간 쌓아온 투철한 봉사정신을 토대로 지역 곳곳에서 나눔정신을 실천해 왔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지역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여, 공명정대 선진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선봉장 역할 등을 수행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약력으로는 전라남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회장, 전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협의회 부회장, 장성군 생활체육 이사, 장성농협 대의원,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여성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신화순 위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역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광주시 4년간 일자리 20만개 만든다...고용률 66% ↑ 목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4조7918억 투입

광주시가 민선8기 4년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64.2%인 고용률을 6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광주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일(My Job)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선 8기 광주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은 ▲미래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생일자리 확산 ▲고용인프라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9대 실행과제·163개 실천과제로 채워졌다.

광주시는 4년간 4조79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6년 고용률(15~64세)을 6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일자리 창출 분야는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플랫폼도시를 3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일을 통해 나 자신이 빛나고 나의 오늘만이 아니라 나의 내일도 빛나기를 희망한다"며 "민선 8기는 미래산업을 키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활력 넘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3천개로 확대

마을별 500만원씩 총 150억 지원

전남도는 주민 참여로 마을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해 행복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올해 150억 원을 지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 전남에서만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다.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정신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이미 선정된 2천 개 마을에 신규로 1천 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총 3천 개 으뜸마을에서 인식전환·환경정화·경관개선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마을별 사업비를 200만 원 증액해 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우수 으뜸마을을 100개소로 확대·선정해 시상 및 우수마을 현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을 바라는 마을은 시군이나 읍면 으뜸마을 담당부서에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행민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사업비가 확대된 만큼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마을 만들기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마을의 작은 변화가 전남의 큰 변화를 이끌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전남도, 30년 염원 '국립의대 설립'...의료격차 해소 강력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김영록 전남도지사(앞줄 가운데)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200만 전남도민의 숙원인 도내 국립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승남·서삼석·김원익·서동용·소병철·주철현 국회의원, 박우량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강필구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군의원, 수도권 향우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눠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와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

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전남지역 국립 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김승남 국회의원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토론회에선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도 발표했다.

건의문은 김영록 지사, 서동욱 의장,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22개 시·군을 대표해 박우량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과 강필구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 서명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구호가 담긴 손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2부 토론회에는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박효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부국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장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정미 전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의료정책 전문가가 참여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전남도-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의 비즈니스 협력

전남도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KACCOC)와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비롯해 두 지역 비즈니스 협력 및 경제교류를 위해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10월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원사의 한국 진출과 대미 수출 확대, 지역 경제단체 교류 촉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한상대회는 매년 10월 개최되는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출 설명회 개최, 투자상담 등 상생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로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오는 10월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주최로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서 박창환 전남도 정부무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계 비즈니스 중심 무대인 미국에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한 만큼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한국어권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한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위	240,833원	414,147원	1.71배
4분위	125,531원	219,147원	1.74배
3분위	79,147원	138,147원	1.74배
2분위	48,103원	84,147원	1.74배
1분위	26,697원	47,147원	1.76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